

광양시, 신라철강과 250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전기차 코일 가공용 설비 증설 일자리 창출... 23명 직원 고용 지역경쟁력 활성화에 힘 보태 "광양 산업 경쟁력 강화될 것"

광양시가 철강 관련 투자를 유치하는 등 에너지 수도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12일 철강 전문 가공유통기업 신라철강(주)과 250억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신라철강(주)은 2025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해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전기강판용 슬리터

라인 설비 등을 증설하고, 23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다.

신라철강(주)은 포스코가 생산한 고급강재 '냉연'을 제품 가공유통 전문 회사로,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냉연코일을 시장의 수요에 따라 절단 가공해 공급하는 업체다.

신라철강(주)은 2022년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에 180억 원을 투자해 광양 공장을 준공한 바 있으며, 이번 증설 투자로 내 전기자동차 구동모터에 들어가는 코일 가공설비를 증설해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김진호 신라철강(주)대표는 "신라철강은 냉연 강판 가공 초격차 기술 등을 개발해

미래 먹거리산업을 선도할 재배를 하고 있다"며 "최고의 품질과 양질의 서비스로 시장 지배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해중 투자경제과장은 "철강 전문 회사와의 투자협약으로 광양시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0개 기업, 3조 원의 투자유치 실현을 목표로 전략적·공격적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이 더 성장하여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여건을 마련할 계

획이다. 앞서 광양은 에너지 수도 전남을 표방하며 광양 제1LNG터미널을 구축한 바 있다.

지난 9일 광양 국가산업단지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최남호 산업부 2차관, 권향엽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제1LNG터미널 종합 준공식이 열렸다.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지난 2002년 착공한 이후 1조4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광양제1LNG터미널'은 LNG 저장탱크 6기, LPG 저장탱크 1기로 이뤄졌다. LNG 93만kL, LPG 8만 6000kL를 저장·

공급하게 된다. LNG는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3분의 1에 불과해 수소와 신재생 등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탄소중립 시대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제1 LNG터미널이 위치한 동호안은 그동안 전남도와 광양시, 포스코 그룹의 노력으로 입지 규제 해소를 이뤄낸 성공 사례"라며 "전남도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LNG 밸류체인 완성과 포스코 그룹의 저탄소 철강 생산, 이차전지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지원 대상 확대

2자녀 이상... 만 13세서 18세로

광양시는 올해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의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막내(태아 포함)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만 지원했으나,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낮추고 및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막내(태아 포함)가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이용 혜택) △농협 하나로마트 5% 할인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할인(에버랜드 등) △영화 인터넷예매시 2000원 할인(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학원 업종 7% 할인, △카페, 베이커리 전문점 5% 할인(스타벅스, 커피빈, 파스쿠찌 등) △다자녀 행복카드 협력 가맹점 추가 할인

추가 할인 혜택(3~20%)이 제공되는 다자녀 행복카드 협력 가맹점은 다자녀 행복카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자녀행복카드 관련 세부사항은 광양시보건소출생보건과(061-797-4758)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끝나지 않은 전쟁 '배소고지 이야기-기억의 연못'

양민학살 생존자 구술기록 토대 창작극... 내달3일 광양문화예회관

오는 8월3일 저녁 7시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6·25전쟁 중 발생한 양민학살 사건이 연극으로 재현된다.

'배소고지 이야기-기억의 연못(포스터)'은 1951년 임실군 옥정호 인근의 배소고지에서 벌어진 200여 명의 민간인 학살사건 생존자의 구술기록을 토대로 한 창작극으로, 당시 여성들이 살아남기 위해 내린 선택이 이후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담담하게 풀어낸다.

또한 이번 연극이 국내외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이집트 국제청년영화제', '대한민국연극제' 대상을 수상하고 올해 '루마니아 바벨 페스티벌'에 초청된 점도 관람하기 전 주목할 점 중 하나다.

김명덕 문화예술과장은 "현재의 삶을 충실하고 아름답게 가꿔나가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관람을 독려했다.

15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하며, 광양문화예술회관에 직접 방문하여 관람표를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전 좌석 1만원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2024 공연예술유통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5백만 원을 지원받아 선보이게 되었으며, 이번 8월 공연은 제주-목포-논산에 이은 네 번째 공연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용강도서관,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광양용강도서관은 16일부터 23까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양시 어린이(유아 6~7세) 15명, 초등학생(1~2학년) 30명을 대상으로 하며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유아 6~7세는 'Summer English A' △초등학생 1~2학년은 'Summer English B' △유아 7세부터 초등학생 1~2학년을 통합한 'Zero 환경

지킴이' 등 3가지 강좌로 구성했다. 영어 강좌는 유아와 초등 저학년이 쉽고 재밌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원어민 강사의 생동감 넘치는 수업으로 진행된다.

'zero 환경지킴이'는 독서프로그램으로, 독후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을 키우고 독서에 흥미를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수강신청 및 관련 세부 사항은 용강도서관(061-797-3857)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동백로타리클럽은 지난 9일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관내 곳곳에서 '사랑의 쌀 나눔' 이어져

광양에 사랑의 쌀 나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동광양로타리클럽(회장 이돈희)은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쌀 30포(각 10kg, 9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조동수 중마동장, 이돈희 동광양로타리클럽 회장,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관계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달된 쌀은 이돈희 회장 취임을 계기로 축하 화환

대신 기부받은 쌀로서 중마동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돈희 동광양로타리클럽 회장은 "앞으로 중마동에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광양로타리 클럽은 또 백미(300kg)를 진상면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했다. 전

달된 백미는 회장 이·취임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을 모은 것이다.

지난 9일에는 광양동백로타리클럽(회장 임현옥)이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백미 100포(각 10kg, 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후원품은 회장단 이임식(취임식) 행사에 화환 대신 받은 백미로, 광양시 5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에(지구촌문화공동체, 광양시시각장애인협회, 광양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복노인재가센터, 경로당)에 지원될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 마을 조성' 기본구상 용역 착수

MBN '속풀이쇼 동치미' 협력 발효 식품 체험 명소 기대

광양시는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 마을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 마을'은 백운산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텃밭을 일구고 전통 발효음식을 담그며 재충전하는 공간으로, '속풀이쇼 동치미'로 유명한 MBN과 광양시가 협력해 광양시를 발효식품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박철수 광양시의원, 장용수(주)KDX 한국데이터거래소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역수행기관인 (주)KDX한국데이터거



광양시는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 마을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래소에서는 MBN '속풀이쇼 동치미'와 협력방안 마련 △발효식품 상품 개발 및 판매전략 수립 △백운산, 도선국사, 고로쇠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 등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용역으로 발효식품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광양시의 목표다. 현재 광양시에 거주하지 않지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광양에 자주 방문하며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인구'를 늘려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대규모 관광지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농어촌만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살려 몇 번이라도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광양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양-안영준 기자